‘ 설마 ’와 건설업

**우리 건설인들이 설마 하는 요행심을 버리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며,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참다운 노력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좁아지는 건설 시장에서 자생하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강상녕
(주) 대우종합건설 대표이사

매사에 ‘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 ‘ 설마 어떻게 되겠지 ’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겠지만 특히 건설산업에서는 ‘ 설마 ’로 시작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일반건설업체 수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6월 현재 1만 4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업체의 경영자가 날로 치열해지는 입찰 경쟁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 다른 회사는 몰라도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겠지 ’ 하는, ‘ 설마 ’의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을 것이다. 건설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1 · 2차 투찰해도 낙찰되지 않으면 ‘ 설마 다음 공사에는 낙찰되겠지 ’ 하다가, 또 낙찰되지 않으면 이번 달, 이번 분기, 이번 반기, 금년 내에는 설마 몇 공사 낙찰받으려니 생각하다가 해를 넘기는 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 수주와는 관계없이 경상비는 계속 지출되므로 본사 유지 관리비로 인해 결손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다시 계획을 수정해 자체 공사로 경영 방침을 바꿀 수밖에 없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건립할 대지를 구입해 자체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현대인의 취향에 맞추려고 구조나 내장재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공을 받지만 ‘ 설마 적정선에서 잘 분양되겠지 ’ 하는 마음과는 달리 준공 검사마저 애로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 설마 ’ 증후군이 관행으로 굳어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건축법」상 공동 주택인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 주택)의 경우 법에 어긋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발코니 새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거지의 50% 정도를 점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새시를 설치하고 있어 대마불사(大馬不死) 격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묵인하는 듯한 인상이다. 다시 말하면 발코니 새시를 설치하면 「건축법」상 건축 면적, 연면적의 불법적인 증가는 물론, 이로 인한 건폐율, 용적률,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 「소방법」상의 소화설비 기준 등 관련 법규 위반이 구슬 꿰미처럼 줄줄이 걸리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방치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공동 주택 또는 단독 주택이 불법 천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뼘의 주거 공간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발코니에 보일러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고, 특히 어린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새시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전국적으로 묵시적 관행으로 인정받을 만큼 확산되어 있으니 아예 공동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도 발코니 새시 설치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 차선책으로 동파 방지 및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투명용 유리 등으로 설치하는 안전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는 행정 기관으로서는 인력 낭비요,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도 설마의 소산이다. 우리 건설인들이 설마 하는 요행심을 버리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며,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참다운 노력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좁아지는 건설 시장에서 자생하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 두 세기 동안의 산업 기반 사회에서는 철, 석유, 석탄, 목재 등 천연 자원이 국력의 핵심 요소였지만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두뇌 자원, 즉 연구 역량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두뇌 자원은 생명체이다. 즉, 인간이다. 연구 역량이란 거대한 연구 시설이나 방대한 기술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두뇌와 기술자의 손끝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건설인이 자성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치밀한 계획과 손끝의 치밀한 작동으로 근본적인 정신 개혁을 통해 새 틀을 만들어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가 부흥하고 후대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건설 구조물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J